



전쟁기념관 6月 개관 준비에 박차...

- 민족정기와 호국정신의 교육장으로 애국심 함양에 기여 -



▲옥외전시장에 전시되어있는 각종 무기들

민족 정기와 호국정신을 일깨우는 국민교육의 도장인 전쟁기념관이 그 모습을 들어내기위한 마무리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990년 9월 28일 기공식 이후 4년간 건립공사와 자료수집을 거쳐 오는 6월에 개관될 대지 35,330평, 건평 25,449평의 웅장한 기념관이 서서히 모습을 들어내고 있다.

전쟁기념관은 전시실과 옥외전시장으로 구분되는데, 호국추모실, 전쟁역사실, 한국전쟁실, 해외파병실, 국군발전실, 대형장비실 등 6개 전시실에는 고대부터 최근까지의 전쟁과 군사에 관한 자료들을 실증적이고 역동적으로 전시하여, 신분과 계급을 구별없이 국민극복에 앞장섰던 조상들의 호국정신과 항쟁의식을 부각시키고 6·25전쟁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는데 전시중점을 두었다.

옥외전시장에는 세계 각국의 대형무기, 광개토대왕릉비, 6·25상징상 등이 전시된다. 이밖에도 방산장비실, 축소모형무기전시실, 기획전시실 등이 있으며, 회랑에는 전사장병들의 명비가 세워진다.

특히 방산장비전시실은 70년대에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망되어 한국군 현대화 및 전력증강목표달성을 위하여 시작된 방위산업이 25년간 생산한 국산방산물자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생산업체를 표기하여 전시하였다.

방산전시실이 완성되면 국·내외 관람객들로 하여금 우리의 국방력과 국방과학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는 한편, 방산물자 해외수출을 위한 외국바이어와 협상시 유용하게 활용되리라 본다.

이와같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쟁기념관이 개관된 이후에도 생산되는 국산고도첨단장비를 지속적으로 보완전시해야 할 것이라고 전쟁기념관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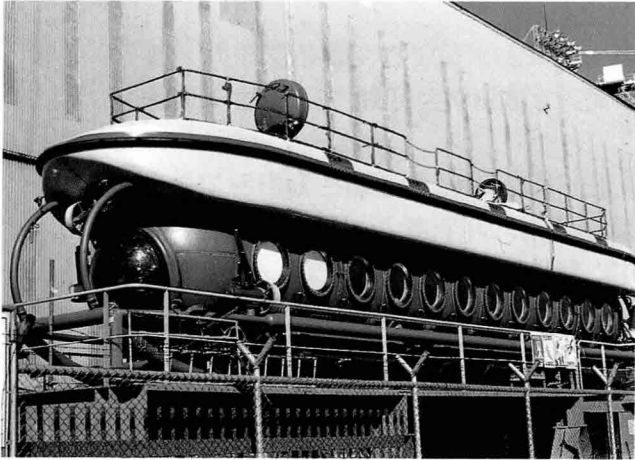
국민교육의 도장 전쟁기념관!

위국 헌신한 선열들의 정신과 위업을 기리고 추모하는 전당으로서, 민족의 정기와 조상의 호국정신을 일깨우는 역사의 산교육장으로서 국민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되기를 기대한다.

▼방산장비전시실은 우리의 국방과학기술력 과시는 물론 방산물자 해외수출 협상시 유용하게 활용되리라 기대된다



대우조선 국내 첫 48인승 관광잠수정 개발



방위 산업기술이 민수산업기술로 전용되어 국내 최초로 관광잠수정을 개발한 개가를 올렸다.

대우조선이 그동안 「이천함」 「장보고함」 「최무선함」 등 전투잠수함 건조로 익힌 기술을 바탕으로 지난 92년 8월부터 관광잠수정 개발에 들어가 30억원을 들여 1년 6개월

만에 설계·소재개발 등 전공정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관광잠수정은 항공기보다 예민하고 까다로운 조종통제장치와 수중 정보 전달체계 및 밀폐형 투명유리, 특수장비와 소재 등 최첨단 기술력이 요구되며 승객 48명을 싣고 수심 75m 깊이에서 하루 10시간 운항할 수 있는 고성능 선박이다.

이 잠수정은 핀란드에서 수입되어 제주도에서 운항하고 있는 관광잠수정보다 2배 이상 빠른 4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고, 배터리로 운항되기 때문에 관광지역 환경오염도 방지할 수 있다.

이번 관광잠수정 개발을 통해, 한국방위산업이 70년대초 시작하여 고도정밀무기의 연구개발기술이 중화학공업발전을 선도해 왔듯이, 앞으로 고도첨단기술분야에서도 민수산업기술 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산학회, 「훌륭한 방산기업 大賞」 시상

한국 방위산업학회(會長 白永勳)가 방산업체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93년 1년간 기업운영 실적을 분석하여 우수업체를 선정, 2월 23일 캐피탈호텔에서 「훌륭한 방산기업 대상」을 시상하였는데, 경영관리 대상에 삼우금속주식회사, 연구개발대상에 한국광학기술개발주식회사, 국제협력대상에 태산정밀을 포상하였다.

이번 시상상은 국내 방위산업이 최근 국내외 안보환경과 경제상황으로 침체되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방산업체와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방산 육성과 제도약의 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93년도부터 제정하여 매년 정기총회시 시상하고 있다.

방위산업학회의 「훌륭한 방산기업대상」 포상제도는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 육성과 기술패권시대에 방위산업의 민간 기술 선도를 통한 기술인력양성과 고용증대로 국가과학기술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